

(불교방송 스카이라이프 진출 축하 영상메세지)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에서 서울의 거리를 환하게 밝혔던 연등의 물결은 동참한 불자 서로가 환한 미소와 행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교방송 티비채널을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불교방송이 텔레비전 영상을 시작한지 3년이 넘어 셧습니다. ‘아 이피-티비’를 시작으로 견실하게 영상 콘텐츠를 쌓아, 이제는 텔레비전 방송의 어엿한 모습을 갖춘 것은 불교계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티비 개국 3년 만에 케이블 채널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 스카이 라이프도 진출한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가입자가 350만이 넘는 스카이 라이프는 특히 산사 등, 일반 전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불교방송의 스카이 라이프 진출을 통해 불교 영상 콘텐츠가 많은 분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하며,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서원합니다.